

## 재외동포청, '비정상의 정상화'에 동포 목소리를 담는다

- 동포청 차장 주도로 특별전담조직 구성... 부서별·전 직원 과제 발굴
- 누리집 '청장과의 대화'로 우리 국민과 전 세계 동포 제안 접수

【관련 국정과제】 123.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

-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이 전 세계 동포가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 불편을 직접 듣고 뿌리 뽑는 '국가 정상화 프로젝트'에 본격 착수했다.
- 이번 조치는 “비정상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”는 대통령 지시('26.3.6.)에 따른 후속조치로, 국민과 일선 실무자가 중심이 되어 과제를 발굴하고 범정부 역량을 모아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.
- 이번 조치는 '제도와 현실의 괴리'를 바로잡고, 동포들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겪었던 비정상적인 불편함을 정상화하려는 목적에서 시작했다.
- ▲동포청 직원과 ▲국민·재외동포 제안 등 양방향으로 발굴한 과제는 내부 위원 4명과 국내·외 동포 포함 외부 위원 8명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에서 검토한다. 특히 재외동포청 누리집 '청장과의 대화' 게시판과 동포청장 SNS를 통해 정책 대상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.
- 발굴한 과제는 1차 검토 간담회와 집단 토론회를 통해 대표 과제로 선정된 후 5월 8일(금)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방침이다.
- 김경협 청장은 “국가 정상화의 여러 유형 중 특히 제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”라고 지적하며, “관련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집중 발굴·개선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혁신행정담당관실	책임자	과 장	황유경 (032-585-3141)
		담당자	주무관	유대원 (032-585-3150)